

삼성 불산 누출사고 피의자 조사

경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확인 ... 조사 후 입건규모 확정

삼성전자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누출사고 담당자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착수됐다.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과 화성 동부경찰서는 2월11일 “삼성전자와 협력기업 STI서비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일부 확인돼 2월12일부터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1월27일 사고 발생 후 삼성전자 36명, STI서비스 15명, 관계기관 6명 등 모두 57명을 불러 조사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한 사법처리 대상에 삼성전자와 STI서비스의 안전관리 담당자를 비롯해 일부 간부급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자들은 업무와 관련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5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으나 아직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아 입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입건규모도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고 밝혀 입건 대상자와 혐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숨진 박모(34)씨의 사인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감정결과는 2월18-19일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 질의결과 등을 토대로 이르면 2월24-25일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측의 입건규모 등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12>